

대장내시경 검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미진¹ · 이영휘² · 김화순² · 함옥경³

인하대병원 간호사¹,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²,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³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to Have a Colonoscopy

Kim, Mi Jin¹ · Lee, Young Whee² · Kim, Hwa Soon² · Ham, Ok Kyung³

¹Registered Nurse, Inha University Hospital, Incheon

²Professor, Nursing Department, Inha University, Incheon

³Associate Professor, Nursing Department,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cision to have a colonoscopy. **Methods:** The sample was one hundred ninety four subjects who completed a self administrated survey. The survey posed questions of self-efficacy scale, fatalism scale and an intention scal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includ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intention of having a colonoscopy and age, educational background, occupation and incom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intention of having a colonoscopy. In contras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fatalism and decision to have a colonoscopy. Self-efficacy, income and ag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decision to have a colonoscopy; accounting for 44.3%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Self-efficacy and fatalism were influence the decision to have a colonoscopy. As a result of these, it may be useful to develop strategies to foster decision making to have a colonoscopy utilizing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Key Words: Self-efficacy, Intention, Colonoscop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진단 기술의 발달, 조기 진단과 중재, 새롭고 정밀한 치료법, 환경내의 발암 물질에 대한 지식의 증가 등의 괄목할 만한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인류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Yoo, 2002). 우리나라도 2010년 한 해 동안 전체 사망

자 약 25만 5천 명 중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144.4 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특히 대장암의 경우 2000년 대비 6.6명 증가하였고, 전체 암 발생률에서 폐암, 간암, 위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atistics Korea, 2011).

대장암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률 감소의 성공 여부는 식사, 운동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암 위험 요인에 적극 대처 하는 일차 예방의 실천과 더불어 조기 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하는 이차 예방 실천에 달려있다. 이차 예방은

주요어: 자기효능, 체념적 신념, 검진의도, 대장내시경

Corresponding author: Lee, Young Whee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53 Yonghyun-4 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202, Fax: +82-32-874-5880, E-mail: ywlee@inha.ac.kr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INHA-2012).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2 (INHA-2012).

투고일: 2012년 4월 12일 / 수정일: 2012년 6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6일

일차 예방에 비해 비용이나 불편감이 증가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 적은 노력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유도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Rex et al., 2009). 대장암의 이차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중 하나인 대장내시경검사는 종양에 대한 보다 더 결정적인 정보 제공 및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선행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다양한 시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Rex et al., 2009). 그런데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전체 건강 검진율이 47.35%인 반면 대장 직장암 검진율은 13.75%로 매우 낮았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많은 연구에서 예방적 건강행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 태도, 의도 등 내적 인지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제시하고 있다(Glanz, Rimer, & Viswanath, 2008). 따라서 암의 일차적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이차적 예방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가치체계를 포함한 내적 인지 요인의 이해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건강행위로의 동기유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암 관련 선행연구에서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방암 검진과 관련하여 건강신념을 중심으로 관련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In (2004)과 Hwang (2004)은 유방암 검진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모형에 포함되어있는 변수와 체념적 신념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 장애성, 유익성, 체념적 신념이 검진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의한 변수로 보고하였다(Hwang, 2004; In, 2004). 반면 국내 선행 연구 중 대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이 되었으나 대장암 검진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선행연구로는 대장암을 포함하여 유방암, 위암 등 전반적인 암 검진 수행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진행된 연구(Kim, 2006)와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 포함된 장애성, 유익성,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Lee, 2006)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대상자의 건강 행위를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이차예방행위 관련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가 있어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행위에 대해 조사한 Kim (2008)과 Tolma, Reininger, Evans와 Ureda (2006)는 유방촬영술 검진 의도에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 (2006)의 일부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암 검진 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암 검진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장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행위와 관련하여 자기효능 개념의 관련성을 재확인하여 자기효능 개념에 대한 실무의 적용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암에 대한 두려움, 비관주의,宿命론, 죽음의 필연성과 같은 복잡한 심리적 과정의 결과에서 유래된 체념적 신념(Powe & Finnie, 2003)은 암 검진 행위에 주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체념적 신념에 대한 연구는 Hwang (2004)과 In (2004)이 유방암 검진 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가 유일하여 이 개념의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장암의 예방적 건강행위에 고려해야 할 영향변수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개발된 통합행동모델(Integrated Behavioral Model)에서는 자기효능감이나 체념적 신념과 같은 변수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도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Fishbein & Cappella,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대장암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포함하는 체념적 신념이 대장내시경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장내시경 조기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장내시경 검진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 자기효능감 정도, 체념적 신념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과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자기효능감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행위를 자신이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2). 본 연구에서는 Hwang (2004)의 유방촬영술 검진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정한 8문항으로 측정된 점수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체념적 신념

인생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선천적 운명으로 결정되어 이 운명을 초월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In, 2004), 암에 대한 체념적 신념은 암에 걸리면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Powe & Finnie, 2003). 본 연구에서는 Powe (1995)가 개발한 암에 대한 체념적 신념 측정도구(Powe Fatalism Inventory: PFI)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념적 신념이 강함을 의미한다.

3) 검진 의도

특정 행위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사정도를 의미한다(Ajzen, 2002). 본 연구에서는 Hwang (2004)이 유방암 검진 의도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 측정을 위해 수정한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체념적 신념이 대장내시경 검진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I대학병원 검진센터로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자를 대상으로 아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2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중 불완전 응답자 18명과 대장내시경이 직장검진에 포함되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게 된 8명을 제외한 19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6개로 하였을 때 146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

족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45세 이상인 자. 이는 연령군 별 암발생률이 40대 중반부터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였다(Statistics Korea, 2009).
- 대장암 과거력이 없는 자
-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1)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

Hwang (2004)이 유방암 검진 행위 의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로 수정한 후 간호학 전공 교수 3명에게 내용 타당도 확인을 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검진행위에 대한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을 나타냈다.

2) 자기효능감

Champion과 Scott (1997)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self-efficacy scale)를 기초로 Hwang (2004)이 유방촬영술 검진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본 연구자가 대장내시경 검진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간호학 전공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 확인을 받았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Hwang (2004)의 연구에서는 .92,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 체념적 신념

Powe (1995)에 의해 개발된 대장암에 대한 체념적 신념 측정도구 PFI를 연구자가 영어 전공자와 함께 한글로 번역·역번역 한 후 간호학 전공 교수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인 받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념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인천시 소재 I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I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연구진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0-1431). 다음으로 검진센터를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절차를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자료수집은 연구조사자가 검진을 위해 대기 중인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확인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후 대상자는 질문지 작성법을 안내받고 직접 질문지를 완성한 후 조사자에게 돌려주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과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검증은 Scheffé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과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서술적 통계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검진 의도,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의 서술적 통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검진 의도는 최소값 4점, 최대값 20점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총점 20점 만점에 평균이 14.87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최소값 8점, 최대값 40점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총점 40점 만점에 평균이 30.88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체념적 신념의 경우 최소값 18점, 최대값 67점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총점 75점 만점에 평균이 34.47점으로 중간 이하의 점수로 나타났다.

Table 1. Level of Self-efficacy, Fatalism and Intention of Taking Colonoscopy (N=194)

Variables	M±SD	Min	Max
Intention of taking colonoscopy	14.87±3.52	4	20
Self-efficacy	30.88±4.96	8	40
Fatalism	34.47±7.45	18	67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진 의도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진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는 194명으로 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5세에서 54세가 102명(52.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5세부터 64세가 68명(35.1%), 65세 이상이 24명(12.4%) 순이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129명으로 66.5%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90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의 경우 145명(74.7%)이 종교가 ‘있다’로 응답하였다. 직업의 경우 101명(52.1%)이 직업이 ‘없다’로 응답하였고, 가정의 월 평균 전체 수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75명(38.7%)이 401만원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건강하다 91명(46.9%), 보통이다 73명(37.6%), 불건강하다 30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인 중 암 환자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97명(50.0%)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진 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F=4.07, p=.019$), 교육수준($F=3.15, p=.026$), 직업($t=2.22, p=.027$), 수입($F=2.66, p=.34$)이었다. 사후 다중비교 분석한 결과 연령의 경우 65세 이상에 속하는 군이 55세부터 64세에 속하는 군 보다 검진 의도가 낮았고,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가 대학교 이상보다 검진 의도가 낮았다. 수입에서는 월 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군에 속하는 사람이 300만원대에 해당되는 사람 보다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의 평균점수가 낮게 조사되었으나 사후 분석결과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과 검진 의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과 검진 의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과 검진 의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4, p<.001$)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검진 의도가 높았고, 체념적 신념과 검진 의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34, p<.001$) 체념적 신념이 높을수록 검진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체념적 신념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31, p<.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체념적 신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Intention of Taking Colonoscop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ntention of taking colonoscopy	
			M±SD	t or F (p)
Age [†] (year)	45~54 ^a	102 (52.6)	14.97±3.50	4.07 (.019) b > c
	55~64 ^b	68 (35.1)	15.37±2.89	
	≥65 ^c	24 (12.4)	13.04±4.66	
Gender	Male	65 (33.5)	15.03±3.66	0.44 (.655)
	Female	129 (66.5)	14.79±3.46	
Level of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a	14 (7.2)	12.93±5.58	3.15 (.026) a < d
	Middle school ^b	36 (18.6)	14.08±3.14	
	High school ^c	90 (46.4)	14.99±3.02	
	≥College ^d	54 (27.8)	15.70±3.69	
Religion	Yes	145 (74.7)	14.69±3.72	1.23 (.218)
	No	49 (25.3)	15.41±2.86	
Occupation	Yes	93 (47.9)	15.41±3.24	2.22 (.027)
	No	101 (52.1)	14.29±3.73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100	10 (5.2)	13.10±4.12	2.66 (.034)
	101~200	36 (18.6)	14.00±3.24	
	201~300	38 (19.6)	13.90±3.44	
	301~400	35 (18.0)	15.66±2.99	
	≥401	75 (38.7)	15.44±3.82	
Health perception	Healthy	91 (46.9)	15.35±3.53	1.64 (.197)
	Moderate	73 (37.6)	14.51±3.25	
	Not healthy	30 (15.4)	14.30±4.04	
Cancer patient within significant others	Yes	97 (50.0)	14.87±3.99	-0.02 (.984)
	No	97 (50.0)	14.88±3.00	

[†]Scheffé test.**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Fatalism and Intention of Taking Colonoscopy

(N=194)

Variables	Self-efficacy	Fatalism
	r (p)	r (p)
Fatalism	-.31 ($< .001$)	
Intention of taking colonoscopy	.64 ($< .001$)	-.34 ($< .001$)

4.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 예측요인

대상자의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과 주요 변수인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의 총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명목변수는 모두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에 대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검진 의도의 예측변수로는 자기효능감이 40.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나타냈고, 수입과 연령이 추가되어 전체 변량의 44.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장내시경의 검진수행에 대한 의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진 수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검진 의도는 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 낮은 학력과 65세 이상 노인 군에서 검진 의도가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2004)은 암 검진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낮은 교육수준과 불완전한 고용상태인 경우가 많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력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느껴 암 검진

Table 4. Predictors of Intention of Taking Colonoscopy

(N=194)

Variables	B	β	t	p	R ²	Adjust R ²	F	p
Self-efficacy	0.44	.62	11.52	< .001	.410	.407	133.48	< .001
Household income	0.52	.19	3.45	.001	.437	.431	74.09	< .001
Age	0.92	.12	2.25	.026	.451	.443	52.12	< .001

참여 의도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노인의 경우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가 많고, 타인과의 교류가 적어 절망감, 우울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신의 운명이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안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장암 조기발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검진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겠었다.

그리고 Kim (2006)은 대장내시경 조기검진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 교육정도, 현재 건강상태, 건강관심, 규칙적인 운동유무가 관련요인이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암 검진 관련 국내연구에서 Park (2003)은 연령에 따라 검진수행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고, Woo (2008)는 월평균소득과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Kim (2009) 또한 대상자의 연령, 직업상태,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암 조기 검진 수행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연구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대장내시경 검진수행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연령, 수입정도, 직업, 교육수준 정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와 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검진 의도는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유방암 검진 의도와 의 관련성을 조사했던 여러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방암 검진 의도가 높다고 하였고, 유방암 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Kye et al., 2009; Kim, 2008; O'Neill & Bowling, 2008; Tolma et al., 2006). 그리고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기효능감이 40.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변수로 조사되었고, 수입과 연령이 추가되어 전체변량의 44.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장암과 유방암 검진 수행의 영향요인을 연구했던 많은 선행연구결과(Feeley, Cooper, Foels, & Mahoney, 2009; Greisinger, Hawley, Bettencourt, Perz, & Vernon,

2006; Hwang, 2004; Kim, 2008; Tolma et al., 2006)에서 나타났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검진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교육으로 검진의 필요성과 참여의 적극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자신이 믿도록 말해주는 타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설득이나 감정적 환기가 필요하다. 실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중접근성이 높은 TV, 라디오 등을 이용하거나 정기적인 안내문을 통하여 대장내시경 조기검진수행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더불어 영향력 있게 언어적 설득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조기검진 촉구를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개인의 직접적인 성공경험, 개인의 생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인의 정서적 상태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검진 시 느끼는 신체적, 정서적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검사환경과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며, 대장내시경 검진수행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인식을 수정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델링과 사회적 평가로부터 정보를 이끌어 내는 타인의 관찰을 통한 대리학습 또는 대리적 경험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장내시경 검진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용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도 필요하다 하겠다(Feeley et al., 2009).

체념적 신념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진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Hwang (2004)의 연구에서 체념적 신념이 낮을수록 유방암 검진의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Hwang (2004)은 유방암 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 체념적 신념은 더 낮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검진의도를 증진시켜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념적 신념이 높은 대상자에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장내시경의 중요성, 효과성, 유익성, 정확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대장내시경 조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완치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인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중재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암이 발생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인 체념적 신념은 여러 연구에서 암 검진, 조기발견, 치료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Hwang, 2004; In, 2004; Powe, 1995, 1996; Powe & Finnie, 2003; Powe, Hamilton, & Brooks, 2006), 대장내시경 검진행위의 선행요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다(Greiner, Born, Nollen, & Ahluwalia, 2005; Natale et al., 2008; Powe, 1995; Smith-Howell et al.,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체념적 신념은 검진 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Powe 등(2006)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특성과 체념적 신념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본 연구는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가구의 수입정도 역시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의 56.7%를 차지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유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Hwang (2004)의 연구에서 체념적 신념의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3.08점으로 '보통이다' 정도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2.29점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점수로 측정되었다. 향후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체념적 신념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자기효능감과 체념적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대장암 선별검사의 장애요인으로서 암에 대한 체념적 신념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Smith-Howell 등(2011)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과 검진 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검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아 대장내시경 조기검진 수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이었고,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 검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과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체념적 신념과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이 40.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나타냈고, 수입과 연령이 추가되어 전체변량의

44.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대장내시경 검진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체념적 신념에 대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 자기효능감 증진과 더불어 가계수입이 적은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검진 의도 증진을 위한 정책과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를 높이기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과 체념적 신념 감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장내시경 검진 의도만을 결과변수로 측정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수행에 대한 의도와 참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두 변수를 결과변수로 하여 관련 변인을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1-20.
- Bandura, 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Champion, V. L., & Scott, C. R.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breast cancer screening belief scales in African American women. *Nursing Research, 46*(6), 331-337.
- Fishbein, M., & Cappella, J. N. (2006). The role of theory in developing effective health communica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6*, S1-S17.
- Feeley, T. H., Cooper, J., Foels, T., & Mahoney, M. (2009). Efficacy expectations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in primary care: Identifying barriers and facilitators for patients and clinicians. *Health Communication, 24*, 304-315.
- Glanz, K., Rimer, B. K., & Viswanath, K.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 Greiner, K. A., Born, W., Nollen, N., & Ahluwalia, J. S. (2005). Knowledge and perceptions of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mong urban African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0*, 977-983.
- Greisinger, A., Hawley, S. T., Bettencourt, J. L., Perz, C. A., & Vernon, S. W. (2006). Primary care patients' understanding of colorectal cancer screening. *Cancer Detection and Prevention, 30*, 67-74.
- Hwang, R. I. (2004).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in mammography screening practice among low-incom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In, H. K. (2004). *Mammography compliance and influencing fac-*

- tors of low income women gro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J. U. (2006). *Relationship between middle aged women's cognitive-perceptual factors and examination for detection of canc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Medical University, Incheon.
- Kim, T. K. (2008). *Development of a prediction model of the intention of mammography i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Y. A. (2009). *Cancer screening rates and their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port*.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ye, S. Y., Park, K. H., Choi, K. S., Bae, M. J., Moon, I. O., Yun, Y. O., et al. (2009). Predictors of intention to undergo mammography among underutiliz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2), 75-86.
- Lee, J. H.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nd health belief of middle aged and elderly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tale, P. A., Marks, J., Vega, M., Mouzon, D., Hudson, S. V., & Salas, L. D. (2008). Barriers and facilitators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practice in the Latino community: Perspectives from community leaders. *Cancer Control*, 15(2), 157-165.
- O'Neill, S. C., & Bowling, J. M. (2008). Intentions to maintain adherence to mammography. *Journal of Womens Health*, 17, 1133-1141.
- Park, Y. S. (2003). *Cancer screening rates and their related factors in rural and a urban communities: Application of Andersen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Powe, B. D. (1995). Fatalism among elderly African Americans: Effects on colorectal cancer screening. *Cancer Nursing*, 18(5), 385-392.
- Powe, B. D. (1996). Cancer fatalism among African-America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ing Outlook*, 44(1), 18-21.
- Powe, B. D., & Finnie, R. (2003). Cancer fatalism: The state of the science. *Cancer Nursing*, 26, 454-465.
- Powe, B. D., Hamilton, J., & Brooks, P. (2006). Perceptions of cancer fatalism and cancer knowledge: A comparison of older and younger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4(4), 1-13.
- Rex, D. K., Johnson, D. A., Anderson, J. C., Schoenfeld, P. S., Burke, C. A., & Inadomi, J. M. (2009).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guidelines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2008.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104, 739-750.
- Smith-Howell, E. R., Rawl, S. M., Champion, V. L., Skinner, C. S., Springston, J., Krier, C., et al. (2011). Exploring the role of cancer fatalism as a barrier to colorectal cancer screening.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3(1), 140-141.
- Statistics Korea. (2009).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in Korea*. Retrieved September 18, 2010,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
- Statistics Korea. (2011). *The results of death cause in 2010 Korea*. Retrieved March 23, 2012,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
- Tolma, E. L., Reininger, B. M., Evans, A., & Ureda, J. (2006). Exami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construct of self-efficacy to predict mammography intention. *Health Education & Behavior*, 33(2), 233-251.
- Woo, H. Y. (2008). *A study on correlated and contextual factors of gastric and colorectal cancer scree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Yoo, M. J. (2002). *Fatigue and quality of life in lung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chemo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